WEBVTT

00:00:10.275 --> 00:00:11.418
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00:00:11.518 --> 00:00:12.524
김태동 선생입니다.

00:00:12.624 --> 00:00:14.934
드디어 이제 산문을 마지막으로
마칠 때가 됐습니다.

00:00:15.034 --> 00:00:16.985
실전 문제 1, 2, 3,
4, 5, 6을 볼 텐데요.

00:00:17.085 --> 00:00:18.888
세 번 나눠서 수업을 하겠습니다.

00:00:18.988 --> 00:00:21.542
첫 번째 나오는 작품은
삼포 가는 길이라고 하는

00:00:21.642 --> 00:00:24.500
너무나 유명한 작품이니까 여러분
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.

00:00:24.600 --> 00:00:26.976
문제부터 분석하고 만약에
처음 보는 작품이다.

00:00:27.076 --> 00:00:30.960
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우리가
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

00:00:31.060 --> 00:00:32.318
아닐 수도 있거든요.

00:00:32.418 --> 00:00:35.460
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소설을
읽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

00:00:35.560 --> 00:00:38.951
인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부터
한번 해보겠습니다, 아시겠죠?

00:00:39.051 --> 00:00:41.077
첫 번째 1번부터
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00:41.177 --> 00:00:45.003
[A], [B]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
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했어요.

00:00:45.103 --> 00:00:50.102
1번 그러면 [A], [B] 두
부분에서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하면

00:00:50.202 --> 00:00:53.303
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묘사,

대화, 그다음에 서술.

00:00:53.403 --> 00:00:55.504
이것들이 중심으로
전개되는 것도 있고,

00:00:55.604 --> 00:00:59.201
아니면 시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,
표현상의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

00:00:59.301 --> 00:01:01.859
이런 내용들을 묻고 있다고
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

00:01:01.959 --> 00:01:03.332
2번 문제를 볼까요?

00:01:03.432 --> 00:01:05.966
2번은 보기는 윗글의
앞부분 중 일부이다.

00:01:06.066 --> 00:01:10.471
백화의 심리가 보기의 ㉮에서 윗글의
ⓐ로 변화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

00:01:10.571 --> 00:01:12.936
토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
것을 찾아라 그랬는데.

00:01:13.036 --> 00:01:15.697
㉮에서 ⓐ로 변하게 된 부분.

00:01:15.797 --> 00:01:20.284
㉮에서 ⓐ로 변하게 된 부분을
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.

00:01:20.384 --> 00:01:22.341
이게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.

00:01:22.441 --> 00:01:25.605
제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,
제 이름은 이점례예요.

00:01:25.705 --> 00:01:28.486
너무나 너무 유명한
문제입니다, 여러분.

00:01:28.586 --> 00:01:30.826
이건 정말 자주 봤던
문제일 겁니다.

00:01:30.926 --> 00:01:34.721
우선 보기를 보시면 보기는
백화는 아까와 같은 적의는

00:01:34.821 --> 00:01:37.223
나타내지 않았다, 적의
밑줄 쳐 볼까요?

00:01:37.323 --> 00:01:40.249
적을 대하는 심정, 이게

바로 적의가 되겠네요.

00:01:40.349 --> 00:01:43.855
백화는 귀 옆으로 흘러내리는
머리카락을 자꾸 쓰다듬어 올리면서

00:01:43.955 --> 00:01:47.024
피곤한 표정으로 영달이를
찬찬히 바라보았다.

00:01:47.124 --> 00:01:48.652
피곤한 표정으로 밑줄 치고.

00:01:48.752 --> 00:01:49.650
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.

00:01:49.750 --> 00:01:52.317
피곤한 표정으로 영달이를
찬찬히 바라보았다.

00:01:52.417 --> 00:01:56.430
그래요, 밤마다 내일 아침에는
고향으로 출발하리라 작정을 하죠.

00:01:56.530 --> 00:01:58.626
그런데 마음뿐이지 몇 년이 흘러요.

00:01:58.726 --> 00:02:02.361
막상 작정하고 나서 집을
향해 가보는 적도 있어요.

00:02:02.461 --> 00:02:04.185
집을 향해 가보는 적도 있어요.

00:02:04.285 --> 00:02:06.778
나도 꼭 고향 근처까지
가 봤던 적이 있어요.

00:02:06.878 --> 00:02:09.187
한 번은 동네 어른을
먼발치서 봤어요.

00:02:09.287 --> 00:02:11.507
나 이름은 백화지만, 가명이에요.

00:02:11.607 --> 00:02:14.566
본명은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
않아, 이렇게 얘기했어요.

00:02:14.666 --> 00:02:15.998
아무한테도 가르쳐주지 않아요.

00:02:16.098 --> 00:02:19.024
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내
이름은 이점례예요라고

00:02:19.124 --> 00:02:20.289
이름을 얘기하잖아요.

00:02:20.389 --> 00:02:21.300
그럼 이런 거죠.

00:02:21.400 --> 00:02:25.698
선생님도 여러분에게 제
별명을 얘기하지 않잖아요. 왜?

00:02:25.798 --> 00:02:29.041
아직까지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고
서로 이제 친분 관계가 없으니까요.

00:02:29.141 --> 00:02:31.855
영상으로 만나는 게
친분 관계겠습니까?

00:02:31.955 --> 00:02:35.588
그러나 어느 날 제가 사실은
제 별명이 코코몽이었어요.

00:02:35.688 --> 00:02:36.791
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.

00:02:36.891 --> 00:02:39.326
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
친분 관계가 형성된 거겠죠.

00:02:39.426 --> 00:02:42.382
사실은 요즘에는 또 백종원이라는
얘기도 제가 듣습니다.

00:02:42.482 --> 00:02:46.290
아무튼 이런 별명이나 또 본명을
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

00:02:46.390 --> 00:02:48.709
바로 뭐냐면 친분 관계가
형성됐다는 뜻이잖아요.

00:02:48.809 --> 00:02:51.542
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
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

00:02:51.642 --> 00:02:53.536
3번 볼까요?

00:02:53.636 --> 00:02:55.462
교사와 학생의 대화이다.

00:02:55.562 --> 00:02:57.677
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
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00:02:57.777 --> 00:03:01.971
교사가 선생님, 신작로라는 말의
사진적 의미를 알고 있나요?

00:03:02.071 --> 00:03:04.862
새로 만든 길이라는 뜻으로
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

00:03:04.962 --> 00:03:06.648
넓게 새로 낸 길을 말합니다.

00:03:06.748 --> 00:03:07.861
잘 알고 있네요.

00:03:07.961 --> 00:03:11.359
그러면 이 소설의 주제를 고려했을
때 ⓑ의 함축적 의미가 뭘까요?

00:03:11.459 --> 00:03:13.612
ⓑ는 신작로가 났는데라고
얘기했는데.

00:03:13.712 --> 00:03:16.991
이 소설 안에서 신작로라고 하는
소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

00:03:17.091 --> 00:03:19.090
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.

00:03:19.190 --> 00:03:21.509
소재에 대한 문제입니다.

00:03:21.609 --> 00:03:24.610
[가]의 내용을 보기의
시나리오로 개작했을 때,

00:03:24.710 --> 00:03:26.604
[가] 부분 봐야겠네요, 그렇죠?

00:03:26.704 --> 00:03:29.153
[가] 부분을 보고 난 다음에
시나리오를 개작했을 때

00:03:29.253 --> 00:03:32.818
작가가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한
것을 한번 골라 봐라.

00:03:32.918 --> 00:03:35.255
보기 내용은 이건 지금
안 해도 되겠습니다.

00:03:35.355 --> 00:03:37.650
앞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
다시 읽으시면 되겠죠.

00:03:37.750 --> 00:03:40.536
어떤 변화가 보이는지를
확인하시면 되겠네요.

00:03:40.636 --> 00:03:41.836
내용 보겠습니다.

00:03:41.936 --> 00:03:44.156
삼포 가는 길이라고
하는 작품인데요.

00:03:44.256 --> 00:03:46.811
이 삼포 가는 길은 여기에서
이 삼포라고 하는 것이

00:03:46.911 --> 00:03:48.340
구체적 지명은 아닙니다.

00:03:48.440 --> 00:03:52.545
가상의 지명이라고 생각하시면
되겠습니다, 아시겠죠?

00:03:52.645 --> 00:03:54.104
앞부분 볼게요.

00:03:54.204 --> 00:03:54.939
시작합니다.

00:03:55.039 --> 00:03:55.998
앞부분 줄거리.

00:03:56.098 --> 00:03:58.790
공사판을 떠돌아다니던 영달이라고
하는 인물이 있어요.

00:03:58.890 --> 00:04:00.134
떠돌아다니는 인물이죠.

00:04:00.234 --> 00:04:04.433
교도소에서 목공, 용접 등의
기술을 배우고 영달처럼 공사판을

00:04:04.533 --> 00:04:08.488
떠돌다 고향 삼포로 가는
길인 정 씨입니다.

00:04:08.588 --> 00:04:12.487
정 씨는 결국 어디로 향하냐면
고향으로 향하는 사람이겠죠.

00:04:12.587 --> 00:04:15.329
술집을 전전하다가 도망친
백화라는 여자.

00:04:15.429 --> 00:04:17.185
이 세 인물이 주인공이 되겠죠.

00:04:17.285 --> 00:04:19.471
이들 세 명은 우연히
만나 동행하게 되고,

00:04:19.571 --> 00:04:22.516
정 씨와 영달은 백화가 누구보다
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

00:04:22.616 --> 00:04:24.328
알게 됩니다.

00:04:24.428 --> 00:04:28.838
이 세 명의 삼각관계, 서스펜스 이런
걸 나타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.

00:04:28.938 --> 00:04:31.465
고향을 향해 가는
사람들의 모습이에요.

00:04:31.565 --> 00:04:34.670
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

뭐냐면 산업화라고 하는 것,

00:04:34.770 --> 00:04:37.163
근대화라고 하는 것을
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.

00:04:37.263 --> 00:04:40.194
떠돌아다니는 전부 다 고향을
상실한 이 사람들이,

00:04:40.294 --> 00:04:44.021
특히 정 씨를 중심으로 해서 고향을
향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이

00:04:44.121 --> 00:04:44.626
나와 있습니다.

00:04:44.726 --> 00:04:45.665
가볼게요.

00:04:45.765 --> 00:04:46.758
우연히 만났어요.

00:04:46.858 --> 00:04:49.707
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
이야기를 그쳤다.

00:04:49.807 --> 00:04:53.584
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
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.

00:04:53.684 --> 00:04:56.618
이런 것들도 역시 굳이
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

00:04:56.718 --> 00:04:59.936
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
생각하고 읽지는 않잖아요.

00:05:00.036 --> 00:05:03.267
그런데 문제에서 딱 나와 버리면
이걸 이렇게 연상할 수도

00:05:03.367 --> 00:05:04.277
있을 것 같아요.

00:05:04.377 --> 00:05:07.133
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
잘 분간할 수 없었다고 하면

00:05:07.233 --> 00:05:09.792
이들의 앞날이 긍정적이지는
않을 것 같다.

00:05:09.892 --> 00:05:11.738
이런 걸 짐작할 수는
있는 거죠, 왜?

00:05:11.838 --> 00:05:13.022
보기가 주어질 겁니다.

00:05:13.122 --> 00:05:17.344
보기를 통해서 배경이 하는 역할은
인물의 앞날을 예고하기도 한다,

00:05:17.444 --> 00:05:21.583
이런 게 보기의 설명에
나온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

00:05:21.683 --> 00:05:25.178
이 기준으로 보면 이 부분이
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다.

00:05:25.278 --> 00:05:27.878
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.

00:05:27.978 --> 00:05:31.846
뒤에 처졌던 백화가 눈 덮인
길의 고랑에 빠져버렸다.

00:05:31.946 --> 00:05:35.493
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
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.

00:05:35.593 --> 00:05:38.437
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
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.

00:05:38.537 --> 00:05:41.113
띠로리, 뭐 이런 거 나올
거 아니에요, 그렇지?

00:05:41.213 --> 00:05:43.961
드라마 이런 데 보면 전형적으로
업고 둘이 사랑이 깊어지고

00:05:44.061 --> 00:05:46.682
이런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?

00:05:46.782 --> 00:05:48.569
백화는 영달이의 등에
업히면서 말했다.

00:05:48.669 --> 00:05:49.616
무겁죠?

00:05:49.716 --> 00:05:50.934
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.

00:05:51.034 --> 00:05:52.217
정말 무겁지 않았을까요?

00:05:52.317 --> 00:05:53.625
무거워서 이런 건 아니겠죠, 설마.

00:05:53.725 --> 00:05:55.355
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.

00:05:55.455 --> 00:05:57.486
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.

00:05:57.586 --> 00:05:59.479

그러니까 뭔가 애정이
있으니까 가볍겠죠.

00:05:59.579 --> 00:06:02.482
애정이 없는 여자가 아무리
가벼워도 무거울 겁니다, 그렇죠?

00:06:02.582 --> 00:06:03.800
하나의 짐덩이에 불과하겠죠.

00:06:03.900 --> 00:06:07.272
그러나 여기에서는 애정이
있으니까 불편하지도 않았고

00:06:07.372 --> 00:06:09.806
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,
이렇게 얘기합니다.

00:06:09.906 --> 00:06:13.456
백화와 영달이 이 둘 사이에 뭔가
띠로리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

00:06:13.556 --> 00:06:14.690
이렇게 짐작하면 됩니다.

00:06:14.790 --> 00:06:16.728
다만 여기에서는 사랑이
중요한 건 아니에요.

00:06:16.828 --> 00:06:19.218
사랑 중심의 소설이 아니거든요.

00:06:19.318 --> 00:06:21.555
영달이는 표를 사고
삼립빵 두 개와.

00:06:21.655 --> 00:06:22.864
삼립빵 옛날 빵인데.

00:06:22.964 --> 00:06:24.130
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.

00:06:24.230 --> 00:06:25.582
여러분 호빵 정도는
알고 있겠다, 그렇죠?

00:06:25.682 --> 00:06:26.656
찐 달걀을 샀다.

00:06:26.756 --> 00:06:28.228
백화에게 그는 말했다.

00:06:28.328 --> 00:06:30.581
우리는 뒤차를 탈 텐데, 잘 가슈.

00:06:30.681 --> 00:06:31.998
헤어집니다.

00:06:32.098 --> 00:06:33.402
헤어져요, 아쉽죠.

00:06:33.502 --> 00:06:37.270
영달이가 내민 것을 받아 쥔 백화의
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.

00:06:37.370 --> 00:06:39.738
왜? 아쉽잖아요.

00:06:39.838 --> 00:06:44.241
그러니까 영달이라고 하는 마음
따뜻한 이런 사람을 만났고요.

00:06:44.341 --> 00:06:47.024
그래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
이렇게 생각할 텐데.

00:06:47.124 --> 00:06:49.688
아쉽게도 헤어지자 이렇게
얘기한 거니까,

00:06:49.788 --> 00:06:53.028
따로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
눈이 붉게 충혈되었다.

00:06:53.128 --> 00:06:54.158
이렇게 얘기하죠.

00:06:54.258 --> 00:06:55.641
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.

00:06:55.741 --> 00:06:57.513
아무도 안 가나요?

00:06:57.613 --> 00:06:58.717
우리는 삼포로 갑니다.

00:06:58.817 --> 00:06:59.702
거긴 내 고향이오.

00:06:59.802 --> 00:07:01.646
정 씨가 얘기한 거죠.

00:07:01.746 --> 00:07:03.238
영달이 대신 정 씨가 말했다.

00:07:03.338 --> 00:07:04.909
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.

00:07:05.009 --> 00:07:06.962
표 끊고 나가는 거죠.

00:07:07.062 --> 00:07:08.419
백화가 보퉁이 들고 일어섰다.

00:07:08.519 --> 00:07:11.513
정말 잊어버리지
않을게요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07:11.613 --> 00:07:14.627
그러면 여기 [A]
부분이 이 부분인데,

00:07:14.727 --> 00:07:18.683
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
적절한 것은이라고 얘기했으니까.

00:07:18.783 --> 00:07:21.445
대화 중심이라고 하는 건
짐작할 수 있겠네요.

00:07:21.545 --> 00:07:25.402
문제 보면, 1번 문제 보면 대화
중심이라고 하는 게 나왔네요.

00:07:25.502 --> 00:07:28.138
그리고 어떤 내용이 또 있는지.

00:07:28.238 --> 00:07:29.938
우선 한번 보고 갈까요, 여러분?

00:07:30.038 --> 00:07:31.686
1번에 1번 선택지.

00:07:31.786 --> 00:07:34.167
[A]는 한 인물에 초점을 두어
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.

00:07:34.267 --> 00:07:37.549
여기에서는 영달이 나오고
정 씨가 나오고 백화가

00:07:37.649 --> 00:07:42.277
또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한 인물에
초점을 두었다는 말이 틀렸겠죠.

00:07:42.377 --> 00:07:43.346
X.

00:07:43.446 --> 00:07:45.889
백화의 내적 갈등 중심으로
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나, 라고

00:07:45.989 --> 00:07:51.700
되어 있는데, 백화의 내적 갈등이라고
하면 아무도 안 가나요,

00:07:51.800 --> 00:07:52.970
잊어버리지 않을게요.

00:07:53.070 --> 00:07:55.433
뭔가 이렇게 좀 괴로워하고
있는 건 맞아요.

00:07:55.533 --> 00:07:57.783
그러니까 내적 갈등이라고
해도 괜찮습니다.

00:07:57.883 --> 00:08:01.279
내적 갈등이라고 하면 뭔가 한
인물이 마음속에 고민이 있을 때

00:08:01.379 --> 00:08:03.050
그걸 내적 갈등이라고 하면 되겠죠.

00:08:03.150 --> 00:08:05.934
그러니까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
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나

00:08:06.034 --> 00:08:07.492
이거는 맞습니다.

00:08:07.592 --> 00:08:11.305
3번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
인물의 인과적 행동을

00:08:11.405 --> 00:08:13.336
전달하고 있다고 했는데.

00:08:13.436 --> 00:08:16.854
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는
당연히 맞습니다만

00:08:16.954 --> 00:08:20.215
인과적인 행동 전달이라고
하면 뭐냐면, 행동 전달.

00:08:20.315 --> 00:08:23.082
개찰구 나가고 있었다,
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.

00:08:23.182 --> 00:08:26.570
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
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죠.

00:08:26.670 --> 00:08:29.118
그래서 인과적이라고 하기는
좀 어렵기도 합니다만

00:08:29.218 --> 00:08:34.144
헤어지려고 백화가 보퉁이를
들고 일어섰다라고 하면

00:08:34.244 --> 00:08:38.489
굳이 끼워 맞추자면 인과적으로
행동했다고 해도 되겠죠.

00:08:38.589 --> 00:08:41.138
그러면 이런 문제 선택지
같은 경우는 3번은

00:08:41.238 --> 00:08:43.573
[A] 부분에 그냥
세모 정도만 해두세요.

00:08:43.673 --> 00:08:46.718
세모 정도만 해두시고, 그
뒷부분을 좀 더 판단해봐야겠다.

00:08:46.818 --> 00:08:47.930
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.

00:08:48.030 --> 00:08:51.136
억지로 끼워 맞춰서 무조건 이거라고
생각해 버리면 안 되겠죠,

00:08:51.236 --> 00:08:52.269
여러분 당연히.

00:08:52.369 --> 00:08:54.783
4번 보면 인물들의
직접적인 목소리를 통해.

00:08:54.883 --> 00:08:59.433
직접적인 목소리는 맞습니다만 급박하게
사건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면

00:08:59.533 --> 00:09:03.574
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00:09:03.674 --> 00:09:06.213
급박하게 사건이 전개되고
있다면 여기에서는

00:09:06.313 --> 00:09:08.304
급박하게라고 하는 말이
좀 애매하잖아요.

00:09:08.404 --> 00:09:11.776
긴급하고 갈등이 최고조
되고, 긴장되는 상황

00:09:11.876 --> 00:09:15.786
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, 갑자기
헤어지게 되는 상황이 나왔으니까

00:09:15.886 --> 00:09:18.815
급박하게 사건을 전개하고
있다고 하면 괜찮습니다.

00:09:18.915 --> 00:09:20.325
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
00:09:20.425 --> 00:09:22.832
이것도 역시 세모
정도면 적절하겠죠.

00:09:22.932 --> 00:09:26.335
5번은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
인물의 정서를 드러낸다.

00:09:26.435 --> 00:09:29.080
정답은 인물의 대화를 통해
정서 전달하고 있는 거니까

00:09:29.180 --> 00:09:31.899
5번에 [A]에 대한
설명도 적절하겠죠.

00:09:31.999 --> 00:09:34.848
[B] 부분을 봐야지만
문제가 해결되겠네.

00:09:34.948 --> 00:09:37.447
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.

00:09:37.547 --> 00:09:39.619
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
다시 돌아왔다.

00:09:39.719 --> 00:09:42.400
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
채로 웃고 있었다.

00:09:42.500 --> 00:09:44.309
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.

00:09:44.409 --> 00:09:46.707
본명은요 이점례예요.

00:09:46.807 --> 00:09:51.086
이름 참 순박하고 정말 이름에 착함이라고
쓰여 있지 않습니까, 그렇죠?

00:09:51.186 --> 00:09:52.281
이점례예요.

00:09:52.381 --> 00:09:57.061
그런데 이 여자가 왜 하필이면
사람들한테 이 말을 했을까요?

00:09:57.161 --> 00:09:59.773
내 이름은 이점례라고
왜 얘기했을까요?

00:09:59.873 --> 00:10:02.349
본명은 아무한테도 말하지
않을 거예요라고 했는데

00:10:02.449 --> 00:10:06.467
이 사람들이 아무나가
아닌 게 된 거죠.

00:10:06.567 --> 00:10:09.264
아무나가 아닌 게 됐다는
얘기는 바로 뭐냐면

00:10:09.364 --> 00:10:13.340
아무나가 아니니까 좀 뭔가 따뜻한
정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고,

00:10:13.440 --> 00:10:16.895
내가 내 본명을 얘기해줘도
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

00:10:16.995 --> 00:10:18.568
이렇게 본명을 얘기했겠죠.

00:10:18.668 --> 00:10:20.986
그럼 2번 문제 풀 때
그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.

00:10:21.086 --> 00:10:22.424
다시 [B] 부분을 볼까요?

00:10:22.524 --> 00:10:26.153
[B] 부분을 보면, 여자는

개찰구로 뛰어나갔다.

00:10:26.253 --> 00:10:29.322
잠시 후에 기차는 떠났어요.

00:10:29.422 --> 00:10:31.465
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
한 시간쯤 잤다.

00:10:31.565 --> 00:10:32.500
누가?

00:10:32.600 --> 00:10:33.983
영달이하고 정 씨가.

00:10:34.083 --> 00:10:36.722
깨어 보니까 대합실 바깥에
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.

00:10:36.822 --> 00:10:38.060
기차는 연착이었다.

00:10:38.160 --> 00:10:39.533
연착은 늦게 도착했다는 겁니다.

00:10:39.633 --> 00:10:43.265
밤차를 타려던 시골 사람들이
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고요.

00:10:43.365 --> 00:10:45.430
두 사람은 말없이
담배를 나눠 피웠다.

00:10:45.530 --> 00:10:48.660
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
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.

00:10:48.760 --> 00:10:51.358
영달이가 혼잣말로, 여기까지.

00:10:51.458 --> 00:10:54.459
그럼 오른쪽 1번 먼저
확인하고 가겠습니다.

00:10:54.559 --> 00:10:59.201
1번에 [B]을 보니까 다양한 인물들의
양상을 서술자가 설명하고 있다.

00:10:59.301 --> 00:11:00.774
다양한 인물들의 양상.

00:11:00.874 --> 00:11:03.313
여기에서는 두 사람이 그냥
담배를 피고 있고, 졸고 있고

00:11:03.413 --> 00:11:06.058
이런 장면이니까 여기에서는
다양한 인물들의 양상이라고

00:11:06.158 --> 00:11:07.703
얘기할 수 없지 않을까요?

00:11:07.803 --> 00:11:08.935
두 명이면 다양하다.

00:11:09.035 --> 00:11:10.287
다양한 인물.

00:11:10.387 --> 00:11:14.074
그런데 다양한 인물들의
양상이라고 하면 다양한 양상,

00:11:14.174 --> 00:11:16.266
다양한 모습 이런 걸
보여줘야 되는데.

00:11:16.366 --> 00:11:17.812
그것도 좀 애매하긴 하죠.

00:11:17.912 --> 00:11:22.004
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[B]는 세모
치시고, [A]가 확실하게 틀렸으니까

00:11:22.104 --> 00:11:22.895
오케이.

00:11:22.995 --> 00:11:24.691
그러니까 1번은 우선 안 되겠네요.

00:11:24.791 --> 00:11:26.703
2번에 [B], 외적
풍경 묘사입니까?

00:11:26.803 --> 00:11:28.548
외적 풍경이 묘사되고 있지 않죠.

00:11:28.648 --> 00:11:30.769
인물들의 행동만 나와 있으니까요.

00:11:30.869 --> 00:11:37.261
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행동이 나와
있으니까 우선 2번이 틀렸겠죠.

00:11:37.361 --> 00:11:40.425
3번은 작품 안의 서술자는
당연히 안 됩니다.

00:11:40.525 --> 00:11:43.896
작품 안의 서술자라고 하면 나라는
인물이 이 두 사람을 관찰하거나

00:11:43.996 --> 00:11:46.784
나라는 인물이 자신의
이야기를 하거나 그래야겠죠.

00:11:46.884 --> 00:11:49.489
그러니까 3번도 역시 틀렸고.

00:11:49.589 --> 00:11:52.671
그다음에 서술자가 개입해서
사건 속도를 지연시키고 있다.

00:11:52.771 --> 00:11:54.898
서술자가 개입하고
있는 것도 없어요.

00:11:54.998 --> 00:11:57.595
서술자가 개입한 게 아니라
겉으로 관찰한 사실만

00:11:57.695 --> 00:12:00.248
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
서술자가 얘네에 대해서

00:12:00.348 --> 00:12:03.260
직접적으로 평가를 해주거나
이런 내용이 전혀 없죠.

00:12:03.360 --> 00:12:07.170
5번을 보면 서술자가 요약하여
전달하는 방식을 통해서

00:12:07.270 --> 00:12:09.839
인물의 행동과 심리를
드러내고 있다.

00:12:09.939 --> 00:12:11.530
정답은 5번이 정답이겠죠.

00:12:11.630 --> 00:12:13.691
아무튼 [A], [B]를
통해서 문제는 풀었습니다.

00:12:13.791 --> 00:12:15.764
쳇 며칠씩이나 견디나.

00:12:15.864 --> 00:12:17.749
이제 영달이의 본심이
나오기 시작합니다.

00:12:17.849 --> 00:12:21.101
점례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
있었으면서도 보내버렸던

00:12:21.201 --> 00:12:22.633
영달이의 심정이 나오죠.

00:12:22.733 --> 00:12:24.442
쳇 며칠씩이나 견디나.

00:12:24.542 --> 00:12:25.335
뭐라고?

00:12:25.435 --> 00:12:26.489
정 씨가 뭐라고?

00:12:26.589 --> 00:12:28.032
아니요, 백화라는 여자 말이요.

00:12:28.132 --> 00:12:31.588
저런 애들 한 사날두
시골 생활 못 배겨나요.

00:12:31.688 --> 00:12:33.496
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.

00:12:33.596 --> 00:12:38.881
요즘 세상에 일이 넌 안으로 인정이
휙 변해 가는 판인데라고 해서

00:12:38.981 --> 00:12:41.725
이 영달이가 이 여자에
대해서 못미더웠던 거죠.

00:12:41.825 --> 00:12:43.416
그러니까 애정이 있어요.

00:12:43.516 --> 00:12:47.512
그렇지만 세상이 변해버리기 때문에
이 여자가 의리를 지키고

00:12:47.612 --> 00:12:51.765
시골 생활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을
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

00:12:51.865 --> 00:12:55.349
그래서 이중적인 심리겠죠.

00:12:55.449 --> 00:13:00.366
영달이라고 하는 사람의 심리는
좋아하는 감정도 있어요.

00:13:00.466 --> 00:13:04.836
있지만, 또 세상이 워낙
각박하고 이러다 보니까

00:13:04.936 --> 00:13:06.934
시골 생활을 못 버틸 것 같다.

00:13:07.034 --> 00:13:09.638
그래서 힘들 것 같다.

00:13:09.738 --> 00:13:12.879
그래서 이렇게 정이 더 깊어지기
전에 보내는 게 맞겠다.

00:13:12.979 --> 00:13:15.183
이런 복합적인 심리가
나타나 있겠죠.

00:13:15.283 --> 00:13:19.291
사실은 이 영달이라고 하는 사람이
옛날에 한 번 술집 여자랑

00:13:19.391 --> 00:13:21.317
동거 생활을 한 적도 있었어요.

00:13:21.417 --> 00:13:23.476
그때 상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.

00:13:23.576 --> 00:13:25.286
휙 변해가는 판인데.

00:13:25.386 --> 00:13:28.601

이 부분이 바로 이제 주제
의식이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.

00:13:28.701 --> 00:13:32.889
요즘 세상에 일이 넌 안으로 인정이
휙휙 변해가는 판인데라고 하면

00:13:32.989 --> 00:13:36.556
근대화로 인해서 산업화로 인해서
세상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

00:13:36.656 --> 00:13:38.474
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거든요.

00:13:38.574 --> 00:13:41.453
그러니까 이것도 주제
의식을 암시하고 있죠.

00:13:41.553 --> 00:13:44.997
정 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
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

00:13:45.097 --> 00:13:46.696
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.

00:13:46.796 --> 00:13:48.550
어디 일들 가슈?

00:13:48.650 --> 00:13:49.756
아뇨, 고향에 갑니다.

00:13:49.856 --> 00:13:50.834
고향이 어딘데.

00:13:50.934 --> 00:13:52.472
삼포라고 아십니까?

00:13:52.572 --> 00:13:55.436
어 알지, 우리 아들놈이
거기에서 도자를 끄는데.

00:13:55.536 --> 00:13:57.657
도자라고 하는 말이 좀
어려운데, 불도저입니다.

00:13:57.757 --> 00:14:00.922
불도저는 이제 일본식 표현으로 해서
도자 이렇게 바꿔 놓은 건데.

00:14:01.022 --> 00:14:06.373
이거 몰라서,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해가
안 되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.

00:14:06.473 --> 00:14:08.845
우리 아들놈이 거기에서
도자를 끄는데.

00:14:08.945 --> 00:14:10.185
삼포에서요?

00:14:10.285 --> 00:14:12.758

거 어디 공사를 벌일 데나 됩니까?

00:14:12.858 --> 00:14:15.950
고작해야 고기잡이 하고
감자나 매는데요.

00:14:16.050 --> 00:14:18.150
어허, 몇 년 만에 가는 거요.

00:14:18.250 --> 00:14:19.542
십 년.

00:14:19.642 --> 00:14:22.389
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.

00:14:22.489 --> 00:14:24.346
말도 말우, 거긴 지금 육지야.

00:14:24.446 --> 00:14:25.859
산업화 진행되고 있는 거죠.

00:14:25.959 --> 00:14:27.544
고향 상실입니다.

00:14:27.644 --> 00:14:35.035
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고, 추럭이,
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.

00:14:35.135 --> 00:14:37.638
이 정 씨는 10년 만에
감옥도 갔다 오고,

00:14:37.738 --> 00:14:41.190
여기저기 떠돌이 공사판도 돌아다니고
그러다 보니까 10년 만에

00:14:41.290 --> 00:14:44.053
집에 가는데 그 고향 마을이 다
변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.

00:14:44.153 --> 00:14:45.978
뭐 때문에요?

00:14:46.078 --> 00:14:48.942
낸들 아나, 뭐 관광 호텔,
이런 것들이 산업화 상징입니다.

00:14:49.042 --> 00:14:52.494
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
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대.

00:14:52.594 --> 00:14:54.429
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?

00:14:54.529 --> 00:14:55.965
그대로가 뭐요.

00:14:56.065 --> 00:14:59.498
맨 천지에 공사판, 들에다
장까지 들어섰는걸.

00:14:59.598 --> 00:15:01.433
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.

00:15:01.533 --> 00:15:03.646
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.

00:15:03.746 --> 00:15:05.250
신작로, 새로 난 길입니다.

00:15:05.350 --> 00:15:07.304
여기에서 신작로는 바로
어떤 의미일까요?

00:15:07.404 --> 00:15:10.062
정 씨에게 있어서 모든
걸 다 파괴해버리는,

00:15:10.162 --> 00:15:14.644
그러니까 나룻배도 없애버리는,
고향의 본 모습을 상실하게 하는

00:15:14.744 --> 00:15:16.027
그런 모습이겠죠.

00:15:16.127 --> 00:15:18.399
신작로가 났는데,
나룻배는 뭐에 쓰오.

00:15:18.499 --> 00:15:20.956
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.

00:15:21.056 --> 00:15:21.960
주제 의식입니다.

00:15:22.060 --> 00:15:24.122
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
잊는 법이거든.

00:15:24.222 --> 00:15:26.952
작정하고 벼르다가
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

00:15:27.052 --> 00:15:30.341
정 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다,
그 소식마저 낯설었다.

00:15:30.441 --> 00:15:33.946
옆에서 잠자코 듣고
있던 영달이가 말했다.

00:15:34.046 --> 00:15:36.608
잘됐군, 우리 거기에서
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.

00:15:36.708 --> 00:15:40.060
영달이는 또 먹고살아야 되는
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했죠.

00:15:40.160 --> 00:15:41.339
그때 기차가 도착했다.

00:15:41.439 --> 00:15:43.343
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지 않았다.

00:15:43.443 --> 00:15:46.651
왜? 자기가 좀 안식처라고 생각하고
고향 마을을 찾으러 갔는데

00:15:46.751 --> 00:15:50.146
그 고향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깥
세상과 똑같이 변해버렸으니까

00:15:50.246 --> 00:15:53.320
당연히 안식처를 잃었다,
이런 생각이 들겠죠.

00:15:53.420 --> 00:15:57.580
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
잃어버렸기 때문이다.

00:15:57.680 --> 00:15:59.600
그 마음의 정처라고 하는
게 바로 삼포고요.

00:15:59.700 --> 00:16:00.935
그게 바로 고향이죠.

00:16:01.035 --> 00:16:06.524
고향 상실의 슬픔, 이런 것들이
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

00:16:06.624 --> 00:16:07.632
어휘 풀이 됐고요.

00:16:07.732 --> 00:16:09.701
그다음에 지문 소화제 보겠습니다.

00:16:09.801 --> 00:16:14.236
눈길에서 발을 다친 백화를
영달이 업어주는 장면은

00:16:14.336 --> 00:16:16.956
친밀감과 유대감을
상징적으로 보여준다.

00:16:17.056 --> 00:16:18.072
당연하죠.

00:16:18.172 --> 00:16:21.478
백화는 정 씨와 영달에게
닫혔던 마음을 열었다.

00:16:21.578 --> 00:16:23.244
그러니까 이점례예요라고
얘기하잖아요.

00:16:23.344 --> 00:16:26.112
정 씨는 고향에서 공사판 일을 잡을
수 있다는 소식에 안도하고 있다.

00:16:26.212 --> 00:16:29.814
정 씨는 마음의 정처를 잃은 사람이라고

생각했으니까 X가 되겠죠.

00:16:29.914 --> 00:16:33.628
1번 문제는 서술상 특징 아까
문제 풀면서 바로 해봤습니다.

00:16:33.728 --> 00:16:35.761
정답 5번,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.

00:16:35.861 --> 00:16:39.089
대화를 통해서 서술자가
요약해서 서술해주면서

00:16:39.189 --> 00:16:42.451
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니까 정답은
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

00:16:42.551 --> 00:16:44.096
2번 봅니다.

00:16:44.196 --> 00:16:47.443
앞부분 중 일부이다, 가장 적절한
것을 고르라고 얘기했는데.

00:16:47.543 --> 00:16:49.223
이 부분이 바로 뭐였냐면, 보세요.

00:16:49.323 --> 00:16:53.915
본명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아
이렇게 얘기했는데, 바뀌었습니다.

00:16:54.015 --> 00:16:57.149
지난밤 자신의 이야기를
털어놓는 백화가

00:16:57.249 --> 00:17:00.066
영달에게 새삼 부끄러운
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.

00:17:00.166 --> 00:17:03.518
즉, 다시 말하면 뭐냐면
윗글의 ⓐ로 변했어요, ⓐ.

00:17:03.618 --> 00:17:05.873
본명은 이점례예요라고 변했어.

00:17:05.973 --> 00:17:08.525
좀 부끄러운 마음이었다면
본명을 얘기하겠니, 얘들아?

00:17:08.625 --> 00:17:09.328
안 하겠죠.

00:17:09.428 --> 00:17:10.631
그러니까 틀렸네요.

00:17:10.731 --> 00:17:12.749
자신에 대한 영달의
마음을 눈치챈 백화가

00:17:12.849 --> 00:17:15.836

자신의 이름을 밝힘으로써
단념시키기 위해.

00:17:15.936 --> 00:17:16.981
자신의 이름 얘기하면
단념하는 거예요?

00:17:17.081 --> 00:17:18.412
단념하지 않겠죠.

00:17:18.512 --> 00:17:21.278
그러니까 사실은 그 뒷
이야기가 이런 얘기도 있으면

00:17:21.378 --> 00:17:22.489
되게 아름다울 것 같기도 한데요.

00:17:22.589 --> 00:17:26.917
영달이가 삼포에 갔다가
백화를 잊지 못해서

00:17:27.017 --> 00:17:28.951
백화가 있는 고향으로
가서 이점례 씨 계세요?

00:17:29.051 --> 00:17:32.534
이렇게 찾아보는 이런 장면도 참
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.

00:17:32.634 --> 00:17:35.406
자신의 본명도 잊은 채
살아갔던 백화가 영달을 통해

00:17:35.506 --> 00:17:38.382
잊었던 자신의 본명과
정체성을 찾았다, 아닙니다.

00:17:38.482 --> 00:17:39.982
정체성 찾았다 아닙니다.

00:17:40.082 --> 00:17:44.539
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뭐냐면
자신의 본명과 정체성을

00:17:44.639 --> 00:17:46.068
찾았다는 게 아니고요.

00:17:46.168 --> 00:17:48.106
본명도 잊은 채 살아간 게
아니라 잊은 채가 아니고

00:17:48.206 --> 00:17:50.243
본명을 그냥 숨긴 채 살아갔죠.

00:17:50.343 --> 00:17:52.982
정상적인 인간 관계가 아니니까요.

00:17:53.082 --> 00:17:57.017
술집 여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명을
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, 그렇죠?

00:17:57.117 --> 00:17:59.111
자신의 본명을 말하지
않을 정도로 타인에 대한

00:17:59.211 --> 00:18:01.212
신뢰가 없었던 백화가, 이거죠.

00:18:01.312 --> 00:18:04.353
영달의 진정성 있는 따뜻한
마음에 감동했기 때문에

00:18:04.453 --> 00:18:06.612
본명을 밝힌 거겠죠.

00:18:06.712 --> 00:18:09.656
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
처지 때문에 본명을 밝히지 못했던

00:18:09.756 --> 00:18:14.351
백화가 영달과 함께 삼포로 갈 수
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.

00:18:14.451 --> 00:18:15.375
아니죠.

00:18:15.475 --> 00:18:17.983
마지막으로 혼자 떠나면서
말을 건넨 거잖아요.

00:18:18.083 --> 00:18:20.477
혼자 떠나면서 혹시라도
나중에 찾아주세요,

00:18:20.577 --> 00:18:22.329
이런 마음도 내포되어 있었겠죠.

00:18:22.429 --> 00:18:27.899
그러면서 자기 본명을, 자기가
진심으로 당신들을 생각한다

00:18:27.999 --> 00:18:32.938
이런 마음으로 이점례예요, 이렇게
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.

00:18:33.038 --> 00:18:34.627
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00:18:34.727 --> 00:18:37.282
신작로라고 하는 것이
어떤 의미인지.

00:18:37.382 --> 00:18:41.941
이 소설의 주제를 고려했을 때
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걸

00:18:42.041 --> 00:18:43.815
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18:43.915 --> 00:18:46.417
인간의 욕망이 시간의 흐름
앞에서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.

00:18:46.517 --> 00:18:49.222
인간의 욕망이 허무하다, 허무감을
나타내고 있는 건 아니죠.

00:18:49.322 --> 00:18:51.646
인간의 욕망의 허무함을
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

00:18:51.746 --> 00:18:54.759
신작로가 오히려 인간의 욕망으로
자연이 파괴되고 있다,

00:18:54.859 --> 00:18:56.084
이건 가능할 수 있죠.

00:18:56.184 --> 00:18:59.121
정 씨의 고향이 개발되어
사람들이 살기 좋게 발전했다.

00:18:59.221 --> 00:19:00.650
이건 주제 의식이 아니죠.

00:19:00.750 --> 00:19:03.143
새로운 길이 생기고 사람이 많아지면서
잃어버린 자연에 대한 경외심.

00:19:03.243 --> 00:19:04.657
경외심이 뭐예요?

00:19:04.757 --> 00:19:07.246
존경하면서 두려워하다,
이런 뜻입니다.

00:19:07.346 --> 00:19:10.099
삼포의 새로운 길이 생겨서 배가
아닌 육로로 편하게 갈 수 있다는

00:19:10.199 --> 00:19:11.387
사실을 알려주고 있다.

00:19:11.487 --> 00:19:12.482
아닙니다.

00:19:12.582 --> 00:19:15.746
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
마음의 안식처인 고향마저

00:19:15.846 --> 00:19:18.227
변해 버려 갈 곳을 잃은 정
씨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.

00:19:18.327 --> 00:19:20.584
이게 바로 신작로의 의미가 되겠죠.

00:19:20.684 --> 00:19:23.289
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
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은

00:19:23.389 --> 00:19:29.244
바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

도시화, 산업화, 근대화

00:19:29.344 --> 00:19:33.003
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을
잃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

00:19:33.103 --> 00:19:35.195
나타나 있다, 이렇게
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

00:19:35.295 --> 00:19:37.963
[가]의 내용을 보기의
시나리오로 개작했을 때

00:19:38.063 --> 00:19:42.130
작가가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한
것을 고르라고 했는데.

00:19:42.230 --> 00:19:43.450
그럼 보세요.

00:19:43.550 --> 00:19:45.546
보기의 시나리오로 만들었어요.

00:19:45.646 --> 00:19:48.733
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
얘기했다는 얘기는

00:19:48.833 --> 00:19:53.077
[가]와 무엇이 달라졌는지, 왜
이렇게 일부러 달라지게 했는지를

00:19:53.177 --> 00:19:57.305
찾아야 되는 거니까 무엇이
달라졌는지를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죠.

00:19:57.405 --> 00:19:59.320
보겠습니다.

00:19:59.420 --> 00:20:01.127
버스 정류소.

00:20:01.227 --> 00:20:02.483
버스가 선다.

00:20:02.583 --> 00:20:04.165
손님이 몇 내리고 탄다.

00:20:04.265 --> 00:20:08.161
정 씨가 차장과 싸우며
영달과 함께 내린다.

00:20:08.261 --> 00:20:10.682
차장과 싸우는 장면이
나왔습니다, 갑자기.

00:20:10.782 --> 00:20:13.027
아니, 내 고향 삼포를 내가 몰라?

00:20:13.127 --> 00:20:15.325
여기는 삼포가 아니란 말이야.

00:20:15.425 --> 00:20:19.073
삼포는 나룻배를 타고 바다를
건너가야 하는데 여기가 삼포라니.

00:20:19.173 --> 00:20:21.488
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.

00:20:21.588 --> 00:20:23.456
눈앞에 삼포를 두고 삼포를 찾다니.

00:20:23.556 --> 00:20:28.003
그러면 여기 앞에 나왔던 것은
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왔는데

00:20:28.103 --> 00:20:30.271
여기에서는 차장과 다투고
있는 거잖아요, 그렇죠?

00:20:30.371 --> 00:20:34.310
다투고 있는 내용도 뭘
어떻게 다투고 있는 거냐면

00:20:34.410 --> 00:20:36.245
여기가 삼포가 아니야, 이렇게
얘기하고 있단 말이야.

00:20:36.345 --> 00:20:37.879
이런 장면이 나왔죠.

00:20:37.979 --> 00:20:40.772
떠나가는 버스, 같이 내린
노인 하나가 빙그레 웃으며

00:20:40.872 --> 00:20:43.156
고향 떠난 지 오래
되신 모양이구먼요?

00:20:43.256 --> 00:20:48.404
예, 한 십 년 됐습니다만 아무려면
제 고향을 몰라보겠습니까?

00:20:48.504 --> 00:20:49.664
십 년이요?

00:20:49.764 --> 00:20:51.066
일 년도 아니고 십 년?

00:20:51.166 --> 00:20:53.479
여보, 지금 일 년이면
세상이 어떻게 변하는데.

00:20:53.579 --> 00:20:55.139
그야 그렇지만, 예?

00:20:55.239 --> 00:20:58.149
옛날에는 나룻배가 다녔지만,
지금은 바다 위로 길이 나서

00:20:58.249 --> 00:21:01.531
버스가 다니고 있단 말이요,

이렇게 얘기했어요.

00:21:01.631 --> 00:21:02.923
이게 신작로예요.

00:21:03.023 --> 00:21:09.192
[가]의 노인의 등장이
우연적이지만, 그다음에 보기에서는

00:21:09.292 --> 00:21:11.387
노인의 등장이
필연적이라고 하는 거다.

00:21:11.487 --> 00:21:14.657
여기에서 갑자기 노인 등장하는 게
필연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.

00:21:14.757 --> 00:21:17.405
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,
이런 것도 아니죠.

00:21:17.505 --> 00:21:21.454
둘 다 노인의 등장이 우연적으로 그
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인 거니까

00:21:21.554 --> 00:21:24.894
노인의 등장이 필연적이라고 하는
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, 틀렸죠.

00:21:24.994 --> 00:21:28.345
[가]에서는 노인과 정 씨가
우호적인 관계죠, 맞아요.

00:21:28.445 --> 00:21:31.964
보기에서는 노인과 정 씨가 왜
적대적인 관계가 되겠습니까?

00:21:32.064 --> 00:21:34.220
보기 시나리오 잘못 이해했잖아요.

00:21:34.320 --> 00:21:37.408
[가]에서는 노인은 새로운 정보를
전달하는 역할로 한정했지만, 맞고요.

00:21:37.508 --> 00:21:40.967
보기에서는 정 씨와 서로 연관을
맺고 있는 인물로 설정해야겠다.

00:21:41.067 --> 00:21:44.540
노인을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주는
역할로 한정했지만, 맞아요.

00:21:44.640 --> 00:21:48.376
보기에서는 정 씨와 서로 연관
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,

00:21:48.476 --> 00:21:50.001
연관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?

00:21:50.101 --> 00:21:51.480
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.

00:21:51.580 --> 00:21:52.817
그러니까 3번 틀렸고.

00:21:52.917 --> 00:21:55.777
[가]에서는 정 씨가 변해버린
삼포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

00:21:55.877 --> 00:21:59.026
나타내고 있지만, 정 씨의 시선에
대해 노인이 반론하는 장면.

00:21:59.126 --> 00:22:01.022
노인이 반론하는 장면 아닙니다.

00:22:01.122 --> 00:22:02.087
똑같이 나타나죠.

00:22:02.187 --> 00:22:03.910
[가]에서는 차장이
등장하지 않았죠.

00:22:04.010 --> 00:22:06.489
보기에서는 정 씨와 차장이
서로 다투는 장면을 추가하여.

00:22:06.589 --> 00:22:08.068
여기까지는 사실적이에요.

00:22:08.168 --> 00:22:09.938
윗글의 보기 내용 제대로
이해한 거니까.

00:22:10.038 --> 00:22:13.687
변해버린 고향에 대한 정 씨의
실망감을 강조할 수 있겠다.

00:22:13.787 --> 00:22:17.519
그래서 그렇게 다툼까지 벌어지겠구나라고
하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.

00:22:17.619 --> 00:22:19.905
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.

00:22:20.005 --> 00:22:24.495
실전 문제 두 번째는 고전
소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22:24.595 --> 00:22:29.178
고전 소설은 얘들아, 고전 소설은
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,

00:22:29.278 --> 00:22:31.175
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.

00:22:31.275 --> 00:22:34.115
고전 소설은 주제가 크게
다섯 가지가 있어요.

00:22:34.215 --> 00:22:35.502
말씀드렸던 것 같다, 그렇지?

00:22:35.602 --> 00:22:36.923
혹시 모르니까.

00:22:37.023 --> 00:22:40.916
사랑과 이별, 그다음에 전쟁과
영웅, 우선 제목이 조웅이잖아요.

00:22:41.016 --> 00:22:43.092
웅, 영웅이라고 할 때 웅이겠죠.

00:22:43.192 --> 00:22:46.736
그러니까 영웅에 관련된 이야기라고
하는 걸 짐작할 수 있겠고.

00:22:46.836 --> 00:22:47.768
다시.

00:22:47.868 --> 00:22:51.303
사랑과 이별, 그다음에
전쟁과 영웅, 가정 소설,

00:22:51.403 --> 00:22:55.338
그다음에 판소리계 소설, 그다음에
양반 사회 계층에 대한 비판, 풍자.

00:22:55.438 --> 00:22:57.004
이런 것들이 바로 주제였다.

00:22:57.104 --> 00:22:59.541
이 다섯 가지 주제에서
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.

00:22:59.641 --> 00:23:00.676
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

00:23:00.776 --> 00:23:04.420
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
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

00:23:04.520 --> 00:23:07.595
고전 소설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
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

00:23:07.695 --> 00:23:09.684
고전 소설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?

00:23:09.784 --> 00:23:14.261
고전 소설이 어려운 이유는
제일 첫 번째는 어휘 부분이

00:23:14.361 --> 00:23:15.517
어려울 수밖에 없어요.

00:23:15.617 --> 00:23:19.464
어휘 부분은 얘들아, 어휘 부분은
한자어들도 되게 많고요.

00:23:19.564 --> 00:23:22.950
그다음에 고사성어도
있고요, 한자성어죠.

00:23:23.050 --> 00:23:30.223
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중국
고사가 인용되기도 합니다.

00:23:30.323 --> 00:23:32.133
중국 고사가 인용되기도 하죠.

00:23:32.233 --> 00:23:35.183
그럼 이 어려운 어휘 같은 경우는
여러분이 어떻게 목표를 세우냐면

00:23:35.283 --> 00:23:37.827
무조건 스킵한다, 이렇게
생각하시면 돼요.

00:23:37.927 --> 00:23:40.751
무조건 스킵한다.

00:23:40.851 --> 00:23:43.954
예를 들어서 심청이가 아버님과
이별할 때 뭐라고 하냐면

00:23:44.054 --> 00:23:45.666
옛날에 누구와 누구와 이별하는 듯,

00:23:45.766 --> 00:23:47.218
옛날에 누가 누구와
이별하는 듯이라고 하면

00:23:47.318 --> 00:23:51.330
그 마음이 그만큼 슬프다는 걸
강조하기 위한 것뿐이겠구나.

00:23:51.430 --> 00:23:53.588
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.

00:23:53.688 --> 00:23:55.222
다른 거 더 이해하실
필요가 없어요.

00:23:55.322 --> 00:23:57.283
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전
어휘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

00:23:57.383 --> 00:24:03.339
어려운 이유는 지칭어나
호칭어가 상당히 어렵죠.

00:24:03.439 --> 00:24:06.070
지칭어나 호칭어가 어려울
수밖에 없어요.

00:24:06.170 --> 00:24:07.519
지칭어나 호칭어가 어려운데.

00:24:07.619 --> 00:24:11.274
첫 번째는 관직명이 상당히
어렵잖아요, 관직명.

00:24:11.374 --> 00:24:14.548

관직명은 여러분, 나올 때마다
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.

00:24:14.648 --> 00:24:18.570
소사, 한림 이런 것들이
나오면 이게 관직명들이구나.

00:24:18.670 --> 00:24:19.946
그래서 눈에 익숙해져야 돼요.

00:24:20.046 --> 00:24:22.345
관직명으로 부르는 경우가
되게 많거든요.

00:24:22.445 --> 00:24:25.409
여러분 사실은 지금 현대
소설도 마찬가지예요.

00:24:25.509 --> 00:24:29.076
40대 중년 아저씨가
주인공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

00:24:29.176 --> 00:24:31.755
김태동 씨 이렇게 부르지
않거든요, 별로.

00:24:31.855 --> 00:24:34.321
뭐라고 부르냐면 김 사장,
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

00:24:34.421 --> 00:24:38.066
소설 내에서 김 사장, 김 대표
이렇게 부를 수도 있거든요.

00:24:38.166 --> 00:24:41.098
그러니까 관직명 같은
경우는 익혀두시면 돼요.

00:24:41.198 --> 00:24:43.785
그다음에 이거 하나
머릿속에 생각할까요?

00:24:43.885 --> 00:24:48.170
성이 같으면, 성이 같으면
두 개일 거예요.

00:24:48.270 --> 00:24:50.974
성이 같으면이라고 해서 성이
같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

00:24:51.074 --> 00:24:55.911
동일 인물일 확률이 높죠.

00:24:56.011 --> 00:25:01.981
동일 인물일 확률이 높고,
그다음에 부자지간이라거나

00:25:02.081 --> 00:25:05.302
아니면 형제지간이라고
생각하시면 되죠.

00:25:05.402 --> 00:25:06.928
동일 인물일 확률이 높아요.

00:25:07.028 --> 00:25:14.338
예를 들어서 유한림, 유생 하면
유 씨 성을 갖고 있는 애거든요.

00:25:14.438 --> 00:25:17.514
뒤에는 한림이라고 하는 건
벼슬이겠고, 젊은 남자를 나타내는

00:25:17.614 --> 00:25:19.238
생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.

00:25:19.338 --> 00:25:21.352
이런 것들은 동일
인물일 확률이 높죠.

00:25:21.452 --> 00:25:22.273
생각해 보세요.

00:25:22.373 --> 00:25:25.036
전쟁을 딱 치르고 있는데
이쪽 팀도 김 장군이고

00:25:25.136 --> 00:25:25.964
저쪽 팀도 김 장군이야.

00:25:26.064 --> 00:25:26.809
그럼 어떻게 해?

00:25:26.909 --> 00:25:29.700
김 장군이 칼을 들었다,
김 장군이 칼을 빼 들었다,

00:25:29.800 --> 00:25:32.390
김 장군이 칼을 휘둘렀다,
김 장군이 칼을 맞았다.

00:25:32.490 --> 00:25:34.174
자결했다는 얘기잖아요.

00:25:34.274 --> 00:25:36.688
그러니까 당연히 소설이
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야.

00:25:36.788 --> 00:25:42.274
그러니까 동일 인물이면 성이 같으면
동일 인물일 확률이 높다.

00:25:42.374 --> 00:25:43.762
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.

00:25:43.862 --> 00:25:47.623
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
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.

00:25:47.723 --> 00:25:53.199
뭐냐면, 지문이라고 하지
말자, 이렇게 하자.

00:25:53.299 --> 00:25:57.019
대화가 무지하게 길어요.

00:25:57.119 --> 00:25:59.828
대화가 무지하게 깁니다.

00:25:59.928 --> 00:26:04.765
춘향이가 이몽룡과 이별할 때
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

00:26:04.865 --> 00:26:07.579
서방님, 당신과 내가
이별해서 슬퍼요.

00:26:07.679 --> 00:26:09.803
현대 소설은 이렇게 나올 거잖아.

00:26:09.903 --> 00:26:12.129
가서 꼭 부디
장원급제해서 돌아오세요.

00:26:12.229 --> 00:26:13.040
이렇게 할 거잖아요.

00:26:13.140 --> 00:26:14.218
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?

00:26:14.318 --> 00:26:19.719
서방님,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났을
때 5월 5일 단옷날이었죠.

00:26:19.819 --> 00:26:22.251
저는 부용당에서 그네를
타고 있었답니다.

00:26:22.351 --> 00:26:24.653
당신은 저에게 방자를 보내셨죠.

00:26:24.753 --> 00:26:26.961
이렇게 얘기해서
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.

00:26:27.061 --> 00:26:29.067
그다음 날 당신이 찾아오셨을 때.

00:26:29.167 --> 00:26:33.585
관객들이나 아니면 독자들을
치매 환자로 아는지

00:26:33.685 --> 00:26:36.897
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
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요.

00:26:36.997 --> 00:26:42.688
그리고 또 이제 당신 떠나신다면
뭐 어떻게 될 거고,

00:26:42.788 --> 00:26:44.303
앞으로 미래 상황도 제시하고.

00:26:44.403 --> 00:26:47.809

당신이 나를 찾아주신다면, 그때
중국 고사 살짝 인용되죠.

00:26:47.909 --> 00:26:53.181
제가 우희가 항우를 만난
듯, 이런 식으로 해서

00:26:53.281 --> 00:26:55.031
상당히 대사가 길어요.

00:26:55.131 --> 00:26:57.709
그러면 어떻게 하냐면
요약하시면 됩니다, 요약.

00:26:57.809 --> 00:27:01.965
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
요약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

00:27:02.065 --> 00:27:03.261
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27:03.361 --> 00:27:05.894
그러면 조웅전이라고
하는 작품을 볼 텐데.

00:27:05.994 --> 00:27:07.116
1번 문제.

00:27:07.216 --> 00:27:09.565
윗글에 대한 설명으로
가장 적절한 것은?

00:27:09.665 --> 00:27:12.941
이거는 서술상 특징을 묻고
있는 문제가 되겠네요.

00:27:13.041 --> 00:27:14.085
넘어갑니다.

00:27:14.185 --> 00:27:17.261
2번은 갈등 양상과 그에 대한
인물의 태도를 정리했을 때

00:27:17.361 --> 00:27:19.537
㉮와 ㉯에 대한 내용으로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27:19.637 --> 00:27:23.801
조웅과 이두병, 이두병의 아들들이
서로 대립되고 있다는 거

00:27:23.901 --> 00:27:25.257
확인할 수 있겠죠.

00:27:25.357 --> 00:27:28.085
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27:28.185 --> 00:27:32.075
황제, 조웅, 황제, 조정
신하들, 부인이 조웅에게,

00:27:32.175 --> 00:27:35.334
조웅이 부인에게 어머님은,
부인은 엄마네.

00:27:35.434 --> 00:27:38.959
조정 신하들이 천자에게 승상
이두병은 이렇게 했으니까

00:27:39.059 --> 00:27:42.174
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이렇게
나온다는 힌트를 듣고 올라가면

00:27:42.274 --> 00:27:43.361
훨씬 더 쉽겠죠.

00:27:43.461 --> 00:27:46.945
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서술상
특징이 가장 유사한 것은?

00:27:47.045 --> 00:27:52.477
그럭저럭 구월도 열흘이 되고,
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

00:27:52.577 --> 00:27:54.476
꽃마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다.

00:27:54.576 --> 00:27:58.989
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
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면서

00:27:59.089 --> 00:28:02.648
말이 서로 통하지를 못하여
답답해하는 양을 보고

00:28:02.748 --> 00:28:03.922
삼복은 무릎을 탁 쳤다.

00:28:04.022 --> 00:28:05.689
그러나 슬프진저, 슬프다.

00:28:05.789 --> 00:28:10.881
땟국과 함께 땀에 찌든 이 누더기를
걸치고 가망이 없는 말이다.

00:28:10.981 --> 00:28:12.186
이거 누가 한 말이야?

00:28:12.286 --> 00:28:16.694
서술자가 편집자적 논평으로
서술자가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.

00:28:16.794 --> 00:28:19.848
무슨 놀이가 없을까,
이렇게 생각한 거죠.

00:28:19.948 --> 00:28:24.893
그러나 슬플진저, 이거는
서술자가 방삼복이라고 하는

00:28:24.993 --> 00:28:27.296

인물에 대해서 평가해주고
있는 거예요.

00:28:27.396 --> 00:28:29.243
서술자 개입 부분이
나타난 걸 찾아 봐라.

00:28:29.343 --> 00:28:31.914
서술자 개입도 설명한 적
있었습니다, 여러분.

00:28:32.014 --> 00:28:36.254
설의적 표현, 감탄형 표현, 회상적
표현, 그다음에 확인적 표현.

00:28:36.354 --> 00:28:38.167
이렇게 네 가지의
형태로 나타나더라.

00:28:38.267 --> 00:28:41.182
얘기했습니다, 여러분.

00:28:41.282 --> 00:28:43.442
조웅이 명관을 따라.

00:28:43.542 --> 00:28:47.858
명관도 어떤 관리자거나
이런 거겠죠, 그렇죠?

00:28:47.958 --> 00:28:50.702
명관을 따라서 옥계 아래에 다다라.

00:28:50.802 --> 00:28:53.958
옥계, 옥 계단 아래에
다다라 국궁하니.

00:28:54.058 --> 00:28:55.388
국궁한다는 건 뭐야?

00:28:55.488 --> 00:29:00.160
국궁은 윗사람 앞에서 몸을 굽히는
것을 바로 국궁이라고 합니다.

00:29:00.260 --> 00:29:01.950
단어 뜻이 설명이 되어
있어야 할 텐데.

00:29:02.050 --> 00:29:05.216
임금께서 오래도록 보시고
크게 칭찬하여 말씀하시기를

00:29:05.316 --> 00:29:07.224
충신의 아들은 충신이요.

00:29:07.324 --> 00:29:08.689
소인의 아들은 소인이로다.

00:29:08.789 --> 00:29:12.220
내가 오늘날 너의 거동을 봄에
충효에서 벗어나지 않으니.

00:29:12.320 --> 00:29:13.455
뭐야?

00:29:13.555 --> 00:29:17.847
거동을 봄에, 봄이라고 하는
게 스프링은 아니군요.

00:29:17.947 --> 00:29:22.796
내 오늘날 너의 거동을 보니까
충효에서 벗어나지 않으니.

00:29:22.896 --> 00:29:25.669
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오.

00:29:25.769 --> 00:29:28.517
또한 나이가 7세라 하니,
7살이야, 겨우?

00:29:28.617 --> 00:29:31.648
짐의 태자와 동갑이라
더욱 사랑스럽도다 하시고

00:29:31.748 --> 00:29:34.458
이어서 태자를, 태자는 아들인
것 같죠, 임금의 아들.

00:29:34.558 --> 00:29:38.363
인견하여, 데리고 와서
하교하여 말을 하되.

00:29:38.463 --> 00:29:42.640
하교, 명령을 내리면서 말하되, 저
아이는 충신 아무의 아들이라.

00:29:42.740 --> 00:29:44.011
누구의 아들이다.

00:29:44.111 --> 00:29:47.363
너와 동갑이요, 또한 충효를
겸하였으니 후일에 더불어

00:29:47.463 --> 00:29:48.981
국사를 함께 모의하라.

00:29:49.081 --> 00:29:52.295
짐이 여든을 바라보는 늙은
나이라, 80살이에요.

00:29:52.395 --> 00:29:55.153
정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
얻었으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오.

00:29:55.253 --> 00:29:56.508
7살짜리한테, 그렇죠?

00:29:56.608 --> 00:29:58.917
라고 말씀하시니 태자도
즐거워하더라.

00:29:59.017 --> 00:30:02.252
웅이 다시 엎드려 아뢰기를

명령을 받드는 아랫사람으로서.

00:30:02.352 --> 00:30:04.446
7살 맞니?

00:30:04.546 --> 00:30:05.462
맞는데.

00:30:05.562 --> 00:30:08.157
명령을 받드는 아랫사람으로서
극히 황공하오나.

00:30:08.257 --> 00:30:11.317
우리 7살 아이들은 진짜
아이스크림 먹기 바쁜데.

00:30:11.417 --> 00:30:14.610
아랫사람으로서 극히 황공하오나
소신의 나이 아직 어리고

00:30:14.710 --> 00:30:18.642
또한 나라의 법이 각별히 엄하오니
어찌 벼슬 없는 여염집 아이가.

00:30:18.742 --> 00:30:22.572
여염집, 평민들의 아이가
궐 내에 거처하오리까?

00:30:22.672 --> 00:30:26.169
국정에 극히 편하지 못하옵고
또 국사가 지중하옵거늘

00:30:26.269 --> 00:30:29.310
이제 폐하께서 어린아이를
대하여 국사를 의논하옵시니

00:30:29.410 --> 00:30:31.816
어찌 두렵지 아니하겠습니까?

00:30:31.916 --> 00:30:34.076
엎드려 바라옵건대 소신은
물러갔다가 입신한 뒤에

00:30:34.176 --> 00:30:36.731
다시 폐하를 알현하겠습니다.

00:30:36.831 --> 00:30:38.288
알현, 똑똑합니다.

00:30:38.388 --> 00:30:39.906
입신양명이라고 하잖아요.

00:30:40.006 --> 00:30:40.897
몸을 세웠다 이런 건데.

00:30:40.997 --> 00:30:43.753
나중에 제가 때를 기다려서
다시 그때 한번 알현.

00:30:43.853 --> 00:30:47.183
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만나는

것을 알현이라고 합니다.

00:30:47.283 --> 00:30:53.372
하며 지극히 간하니,
말씀드리니 임금께서 들으시고

00:30:53.472 --> 00:31:01.780
비록 어린아이의 말이나 이치가
당연하고 바라보니 매우 엄숙한지라.

00:31:01.880 --> 00:31:03.466
매우 엄숙하다.

00:31:03.566 --> 00:31:06.370
한참 후에 말씀하시기를
너의 말이 옳도다.

00:31:06.470 --> 00:31:09.658
그리하라 하시고 다시
하교하시기를, 다시 명령하시기를

00:31:09.758 --> 00:31:12.670
너의 나이 심삽 세가 되거든
품직을 내릴 것이니

00:31:12.770 --> 00:31:16.642
그때를 기다려 국정을 도우라,
이렇게 명령을 했어요.

00:31:16.742 --> 00:31:19.137
하시니 웅이 사배하고 물러나와.

00:31:19.237 --> 00:31:21.756
사배 이런 것들은 뭐냐면
감사 인사드리는 겁니다.

00:31:21.856 --> 00:31:24.404
태자께 하직하니 태자도
못내 연연해하시더라.

00:31:24.504 --> 00:31:26.075
좀 아쉬워하셨다, 이런 뜻이겠죠.

00:31:26.175 --> 00:31:28.420
문맥상 의미가 연연해하시더라.

00:31:28.520 --> 00:31:32.942
이때 천자께서 조정 신하들을
모아 놓고 조웅을 칭찬하시고

00:31:33.042 --> 00:31:37.128
말씀하시되, 시신 중에
이관은 어디에 있느냐?

00:31:37.228 --> 00:31:41.394
시신, 신하들 중에, 모시는
신하들 중에 이런 거 아닐까요?

00:31:41.494 --> 00:31:42.564
시신.

00:31:42.664 --> 00:31:45.067
가까이 모시는 신하들 중에
이관은 어디 있는가?

00:31:45.167 --> 00:31:48.309
여러 신하가 다 이관의
형세를 두려워하는지라.

00:31:48.409 --> 00:31:49.854
이관이 누구일까요?

00:31:49.954 --> 00:31:52.290
우승상 최식이 아뢰기를.

00:31:52.390 --> 00:31:54.515
이관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,
이관은 사람 이름인지

00:31:54.615 --> 00:31:57.201
아니면 벼슬인지는 잘 몰라요.

00:31:57.301 --> 00:32:03.988
우승상 최식이 아뢰기를
폐하께서 충렬묘에 거동하실 때

00:32:04.088 --> 00:32:08.083
죄상을 신문하라 하셨기에 파직을
당하여 쉬고 있습니다.

00:32:08.183 --> 00:32:10.041
누가? 이관이라는 애가.

00:32:10.141 --> 00:32:13.935
황제께서 깨달으시고 마음속으로
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시기를

00:32:14.035 --> 00:32:18.133
저의 말이 한때 경솔하였으나
이제 용서하라.

00:32:18.233 --> 00:32:22.171
저의 말은 임금이 자기가 저라고
표현하지 않을 거 아니야.

00:32:22.271 --> 00:32:26.732
저 사람의 말이 한때 경솔하였으나
이제 용서하라 하셨다.

00:32:26.832 --> 00:32:28.198
원래 이두병은.

00:32:28.298 --> 00:32:29.852
이두병이라는 인물이 나왔네요.

00:32:29.952 --> 00:32:32.707
이두병이 바로 그 앞에 이관이
아닐까 싶기도 하고요.

00:32:32.807 --> 00:32:36.549
여기에서는 이관은 어디 있느냐.

00:32:36.649 --> 00:32:38.535
이관이 아직 누구인지 잘 모르겠죠.

00:32:38.635 --> 00:32:43.125
아무튼 이두병은 아들이 오형제인데,
벼슬이 다 일품에 이르렀기에

00:32:43.225 --> 00:32:46.314
온 조정의 신하가 다
그 형세를 두려워하여

00:32:46.414 --> 00:32:48.747
그 아들들의 말대로 하는지라.

00:32:48.847 --> 00:32:52.808
이날 황제께서 조웅을 사랑하심을
보고 큰아들인, 여기 나왔네요.

00:32:52.908 --> 00:32:54.753
병부시랑 이관이.

00:32:54.853 --> 00:32:59.846
이관은 사람 이름이고, 병부시랑은
바로 뭐냐면 벼슬입니다.

00:32:59.946 --> 00:33:03.112
뒤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
얘들아, 이병부 이럴 수도 있고,

00:33:03.212 --> 00:33:04.748
이시랑 이럴 수도 있거든.

00:33:04.848 --> 00:33:08.005
그러면 그게 이두병의
아들이구나, 이관이구나.

00:33:08.105 --> 00:33:09.371
이렇게 생각하면 돼.

00:33:09.471 --> 00:33:12.676
큰아들인 병부시랑 이관이
크게 근심하여 의논하기를

00:33:12.776 --> 00:33:16.926
조웅이 벼슬하면 아버지의 원수를
갚고자 생각할 것이니.

00:33:17.026 --> 00:33:24.909
그전에 이두병에게 뭔가 참을
당해서, 뭔가 모함을 당해서

00:33:25.009 --> 00:33:28.679
조웅의 아버지가 안 좋은 상황에
처했나 봐요, 그렇죠?

00:33:28.779 --> 00:33:33.257
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생각할
것이니 어찌 근심되지 아니하리오.

00:33:33.357 --> 00:33:36.625
미리 없앰이 마땅하나 아직

벼슬도 하지 않은 아이에게

00:33:36.725 --> 00:33:37.982
어찌 죄를 주겠는가?

00:33:38.082 --> 00:33:41.435
7살짜리한테, 하고 모두
모여서 계교를 의논하더라.

00:33:41.535 --> 00:33:44.647
어떤 좋은 의견 없을까 의논하더라.

00:33:44.747 --> 00:33:47.511
이때 웅이 집에 돌아와
어머니 왕부인을 뵈오니,

00:33:47.611 --> 00:33:50.369
부인이, 부인은 바로 어머니입니다.

00:33:50.469 --> 00:33:53.845
즐겨 물어 말씀하시기를
네가 황상을 뵈었느냐?

00:33:53.945 --> 00:33:55.217
황상은 황제죠.

00:33:55.317 --> 00:33:59.487
웅이 대답하기를 입시하옵거늘
대면하여 뵈었습니다.

00:33:59.587 --> 00:34:00.917
입시하였거늘.

00:34:01.017 --> 00:34:04.838
입시,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을
만나는 걸 입시라고 합니다.

00:34:04.938 --> 00:34:07.640
이런 단어들은 몰라도
뵈었습니다, 임금 만났어요.

00:34:07.740 --> 00:34:09.349
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겠죠.

00:34:09.449 --> 00:34:12.285
부인이 말하기를 황상을
대면하니 두렵지 아니하였으며,

00:34:12.385 --> 00:34:15.805
마땅히 묻는 말씀이 있었을
것이니 어찌 대답하였느냐?

00:34:15.905 --> 00:34:17.071
이렇게 물었다.

00:34:17.171 --> 00:34:20.945
웅이 문답했던 말과 십삼
세가 되면 품직하리라.

00:34:21.045 --> 00:34:25.985
벼슬을 주리라 하시던 말씀과

황제께서 태자를 사랑하던 말씀을

00:34:26.085 --> 00:34:29.373
낱낱이 고하니 부인이
일희일비하여 말하기를.

00:34:29.473 --> 00:34:33.027
일희일비, 한 번
웃으면서 한 번 울고.

00:34:33.127 --> 00:34:36.057
즉, 한 번 즐거워하고
한편으로는 좋아하면서도

00:34:36.157 --> 00:34:41.398
한편으로는 슬퍼하면서 말하기를
황상의 넓으신 덕택이 하늘 같고

00:34:41.498 --> 00:34:46.516
바다 같아서 갚기를 의논치
못하거니와, 네가 만일 벼슬을 하면

00:34:46.616 --> 00:34:50.188
마땅히 소인들의 참소를 입을
것이니 어찌 하려 하느냐?

00:34:50.288 --> 00:34:54.416
나중에 너 간신배들이 너한테
참소할 텐데 괜찮겠니?

00:34:54.516 --> 00:34:56.863
웅이 말하기를, 7살짜리입니다.

00:34:56.963 --> 00:34:59.355
어머님은 염려하지 마소서.

00:34:59.455 --> 00:35:03.219
사람의 죽살이는, 죽고 사는
것은 하늘에 달려 있고

00:35:03.319 --> 00:35:06.041
영광과 욕됨은 수양하기에
달려 있습니다.

00:35:06.141 --> 00:35:09.314
영광스러움과 제가 욕을
입는 것은 제가 어떻게

00:35:09.414 --> 00:35:11.795
수양하느냐에 따라 달려
있으니 어찌 엄려가 있으며

00:35:11.895 --> 00:35:14.870
또 자식이 되어 어찌
불공대천의 원수를.

00:35:14.970 --> 00:35:17.213
불공대천 무슨 뜻입니까?

00:35:17.313 --> 00:35:19.908
하늘에 함께 있지 못하는

뜻으로 세상에 더불어 살아서

00:35:20.008 --> 00:35:21.585
큰 원한을 가졌다 이런 뜻이야.

00:35:21.685 --> 00:35:24.731
불공대천의 원수를 눈앞에
두고 그저 있사오리까?

00:35:24.831 --> 00:35:28.219
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면 무슨
묘책이 있어야 할 것이니

00:35:28.319 --> 00:35:33.866
엎드려 바라옵건대 어머님은
조금도 염려하지 마옵소서.

00:35:33.966 --> 00:35:35.992
이런 아들이 있으면
좋겠다, 그렇지?

00:35:36.092 --> 00:35:40.133
하고 말을 마친 후에 모자가 서로
통곡하니 그 정상이 참혹하더라.

00:35:40.233 --> 00:35:42.218
그 모습이 참혹하더라.

00:35:42.318 --> 00:35:43.665
이게 바로 판단한 거.

00:35:43.765 --> 00:35:45.503
참혹하다 이런 판단들이
들어가 있으니까

00:35:45.603 --> 00:35:47.862
이게 바로 편집자적
논평이 들어갑니다.

00:35:47.962 --> 00:35:50.410
이때는, 또 이제
장면이 바뀌었습니다.

00:35:50.510 --> 00:35:52.185
병인년 섣달 그믐이라.

00:35:52.285 --> 00:35:54.815
황제께서 명당에 전좌하시고,
명당에 앉으시고.

00:35:54.915 --> 00:35:57.462
조정의 여러 신하들을
다 조회를 받으시고.

00:35:57.562 --> 00:36:01.306
아침 조회 같은 거 있죠,
우리가 하는 것처럼.

00:36:01.406 --> 00:36:05.711
국사를 의논할 때 말씀하시기를,
시간이 좀 지난 것 같지 않아요?

00:36:05.811 --> 00:36:10.514
오호라, 짐의 나이가 여든을
바라보는 늙은이로구나.

00:36:10.614 --> 00:36:12.785
세월이 사람의 죽음을 재촉하는데
태자가 아직 어리니

00:36:12.885 --> 00:36:15.736
국사가 가장 망연한지라, 막막하다.

00:36:15.836 --> 00:36:18.639
경들의 소견으로는 어찌해야
짐의 근심을 덜겠는가.

00:36:18.739 --> 00:36:22.430
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흥망성쇠는
마음대로 못하옵거니.

00:36:22.530 --> 00:36:26.070
흥하고 망하고 성, 번성하고
쇠, 쇠퇴하는 것은

00:36:26.170 --> 00:36:30.381
마음대로 못하옵거니와 국사가
아직도 장원하옵거늘.

00:36:30.481 --> 00:36:32.727
장원, 멀다 이런 뜻인 것 같죠?

00:36:32.827 --> 00:36:34.787
장, 긴 장 자, 멀 원 자.

00:36:34.887 --> 00:36:38.663
장원하옵거늘, 이런 단어들도 좀
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, 그렇죠?

00:36:38.763 --> 00:36:41.882
장원하옵거늘 어찌 동궁의
어리심을 걱정하나이까?

00:36:41.982 --> 00:36:42.892
동궁이 누구예요?

00:36:42.992 --> 00:36:44.648
아까 태자가 동궁입니다.

00:36:44.748 --> 00:36:46.987
동궁 마마 이런 거 못
들어봤어요, 그렇죠?

00:36:47.087 --> 00:36:50.469
예부상서 정충이 반열에서
나와 아뢰기를,

00:36:50.569 --> 00:36:52.733
그 반열은 서 있는
열에서 아뢰는 거죠.

00:36:52.833 --> 00:36:56.298

폐하 춘추 많으심과 동궁의
어림을 어찌 근심하십니까?

00:36:56.398 --> 00:37:01.650
승상 이두병이 있사오니 앞날의 국사는
아무런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.

00:37:01.750 --> 00:37:04.368
이두병이라는 인물이 나쁜
놈이니까 정충이라는 인물도

00:37:04.468 --> 00:37:05.929
나쁜 놈일 것 같죠.

00:37:06.029 --> 00:37:07.550
끼리끼리 논다니까요.

00:37:07.650 --> 00:37:09.733
있사오니 앞날의 국사는 아무런
근심이 없을 것입니다.

00:37:09.833 --> 00:37:14.566
조정 신하들이 모두 두병의 권세를
두려워하기에 일시에 아뢰기를,

00:37:14.666 --> 00:37:18.185
승상 이두병은 한나라의
소무와 같은 신하이온대,

00:37:18.285 --> 00:37:20.530
어찌 국사를 근심합니까?

00:37:20.630 --> 00:37:22.760
한나라의 소무는 좋은 사람인
것 같죠, 그렇죠?

00:37:22.860 --> 00:37:25.064
얘들이 칭찬하려고 얘를
끌어들인 거니까.

00:37:25.164 --> 00:37:27.038
임금께서도 오히려 그렇게 여기시지만

00:37:27.138 --> 00:37:31.946
그러나 정녕 믿지는
아니하시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37:32.046 --> 00:37:34.724
그러면 보겠습니다.

00:37:34.824 --> 00:37:39.960
조웅은 궐에 들어가 황제와 이관을
만났다 그랬는데 X가 맞죠.

00:37:40.060 --> 00:37:41.408
이관은 만나지 않았습니다.

00:37:41.508 --> 00:37:43.086
그래서 틀렸고.

00:37:43.186 --> 00:37:46.332

벼슬살이에 대한 조웅과 왕부인의
생각은 대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

00:37:46.432 --> 00:37:47.476
이것도 역시 X죠.

00:37:47.576 --> 00:37:50.785
벼슬살이에 대해 감사 인사하고
있는 건 맞으니까 X입니다.

00:37:50.885 --> 00:37:54.061
임금이 조웅에게 품직을 내릴 것이라는
데에 대해서 왕부인의 심정을

00:37:54.161 --> 00:37:55.914
표현한 4음절의 단어를
써라 그랬는데.

00:37:56.014 --> 00:37:58.832
일희일비를 찾으시면 되겠죠.

00:37:58.932 --> 00:38:02.357
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
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38:02.457 --> 00:38:06.174
1번 보시면 몽유 구조입니다.

00:38:06.274 --> 00:38:07.244
꿈꾼 거 없죠.

00:38:07.344 --> 00:38:10.198
역사적 사실을 인용해서
사건의 개연성.

00:38:10.298 --> 00:38:12.543
이게 어떤 역사적 사실을
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

00:38:12.643 --> 00:38:14.026
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.

00:38:14.126 --> 00:38:15.136
그러니까 X.

00:38:15.236 --> 00:38:17.920
대화를 통해라는 말이 나오면
무조건 지문 보세요.

00:38:18.020 --> 00:38:19.845
따옴표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겁니다.

00:38:19.945 --> 00:38:22.775
대화를 통해 사건 전개하고,
인물의 심리 표출하고 있다.

00:38:22.875 --> 00:38:23.796
적절하죠.

00:38:23.896 --> 00:38:25.237
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.

00:38:25.337 --> 00:38:27.667
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
공간에 대한 묘사 없고요.

00:38:27.767 --> 00:38:30.825
빈번한 장면 전환으로 등장인물
간의 갈등이 심화된다.

00:38:30.925 --> 00:38:33.776
장면 전환이라고 하면
얘들아, 세 가지 보세요.

00:38:33.876 --> 00:38:39.454
시간 변화, 공간의 변화,
그다음에 등장인물의 변화.

00:38:39.554 --> 00:38:41.031
등장인물이 바뀌잖아요.

00:38:41.131 --> 00:38:43.503
그러면 장면 전환이 됩니다.

00:38:43.603 --> 00:38:44.978
그런데 문제는 뭐냐?

00:38:45.078 --> 00:38:48.075
이 빈번하다는 게 횟수가
많다 이런 거잖아요.

00:38:48.175 --> 00:38:50.998
그런데 빈번하다는 기준이
상당히 모호하지 않아요?

00:38:51.098 --> 00:38:54.123
그래서 빈번하다는 말이
나오는 선택지는,

00:38:54.223 --> 00:38:58.100
빈번한 장면 전환에 대한
선택지는 수능에, 모의고사에

00:38:58.200 --> 00:39:00.529
자주 등장했는데 답인
적은 없었어요.

00:39:00.629 --> 00:39:02.496
어떤 사람이 빈번하다,
저는 빈번하지 않아요.

00:39:02.596 --> 00:39:04.021
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.

00:39:04.121 --> 00:39:05.863
그래서 답인 적이 별로 없었어요.

00:39:05.963 --> 00:39:09.731
㉮와 ㉯에 들어갈 내용으로
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39:09.831 --> 00:39:12.811

조웅과 이두병의 아들들,
이관이라고 하는 인물.

00:39:12.911 --> 00:39:15.929
적절하지 않은 것을
고르라고 했는데.

00:39:16.029 --> 00:39:18.238
대천지원수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.

00:39:18.338 --> 00:39:19.948
당연히 조웅의 말이겠죠.

00:39:20.048 --> 00:39:23.328
그다음에 아버지의 원수를
갚으려면 모계가 있어야 한다.

00:39:23.428 --> 00:39:25.265
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니까.

00:39:25.365 --> 00:39:28.170
아직 나이가 어려 아버지의
원수를 갚기가 망연하다.

00:39:28.270 --> 00:39:29.627
정답 3번입니다.

00:39:29.727 --> 00:39:35.996
나이가 어려서 제가 못하겠다, 아직
멀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죠.

00:39:36.096 --> 00:39:40.552
황제가 조웅을 대하는 낯빛이
예사롭지 않으니 걱정이다.

00:39:40.652 --> 00:39:42.701
자식이 복수할 것 같은데.

00:39:42.801 --> 00:39:47.097
그다음에 조웅을 미리 제거해서
후환이 없도록 해야겠다.

00:39:47.197 --> 00:39:50.674
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39:50.774 --> 00:39:55.484
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
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얘기했죠.

00:39:55.584 --> 00:39:58.814
황제가 조웅에게 너의 나이 십삼
세 되거든 품직을 내릴 것이라고

00:39:58.914 --> 00:40:01.020
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
황제는 조웅을 신뢰한다.

00:40:01.120 --> 00:40:03.835
당연히 이런 행동의 의미를
찾고 있는 거니까 당연하죠.

00:40:03.935 --> 00:40:06.686
황제가 조정 신하들에게 시신
중에 이관은 어디 있는가라고

00:40:06.786 --> 00:40:09.831
묻는 것으로 봤을 때 황제는
조정 신하들의 속마음을

00:40:09.931 --> 00:40:11.738
떠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.

00:40:11.838 --> 00:40:17.750
떠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
자기가 벌을 내렸었잖아요,

00:40:17.850 --> 00:40:19.541
이관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.

00:40:19.641 --> 00:40:23.660
그거를 좀 잊고 있으면서 잊어버리면서
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.

00:40:23.760 --> 00:40:26.311
그러니까 앞에 부분 보면
조정 신하들의 속마음을

00:40:26.411 --> 00:40:29.912
떠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앞에
부분 보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

00:40:30.012 --> 00:40:32.699
잊어버리고 이 말을 했다는
걸 알 수 있어요.

00:40:32.799 --> 00:40:34.016
볼까요?

00:40:34.116 --> 00:40:38.341
폐하께서 충렬묘에 거동하실 때
죄상을 신문하라 하셨기 때문에

00:40:38.441 --> 00:40:40.541
파직을 당하여 쉬고 있습니다.

00:40:40.641 --> 00:40:44.418
황제께서 깨달으시고 마음속으로
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시기를,

00:40:44.518 --> 00:40:48.175
저의 말이 한때 경솔하였으나 이제
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

00:40:48.275 --> 00:40:50.517
속마음 떠보고 있는 건 아니죠.

00:40:50.617 --> 00:40:54.937
부인이 조웅에게 십삼 세 되면
품직하리라는 천자의 말을 듣고

00:40:55.037 --> 00:40:58.113
일희일비하는 것으로 봤을 때 관직하는

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.

00:40:58.213 --> 00:41:00.537
이건 뭐 일희일비라는 단어 뜻만
알면 마냥 기쁘지 않다는 걸

00:41:00.637 --> 00:41:01.715
알 수 있죠.

00:41:01.815 --> 00:41:04.091
조웅이 부인에게 어머님은
조금도 염려하지 마소서라고

00:41:04.191 --> 00:41:07.597
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 원수 갚는
것에 대해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.

00:41:07.697 --> 00:41:08.785
맞습니다.

00:41:08.885 --> 00:41:11.457
조정 신하들이 천자에게 승상
이두병은 한나라의 소무와 같은

00:41:11.557 --> 00:41:14.054
신하 이온대, 어찌 국사를
근심하십니까라고 했을 때

00:41:14.154 --> 00:41:16.824
조정의 신하들은 권세를
두려워하고 있다.

00:41:16.924 --> 00:41:18.666
뭐 문제가 좀 상당히 쉽네요.

00:41:18.766 --> 00:41:23.645
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서술상 특징이
가장 유사한 걸 찾으라 그랬는데.

00:41:23.745 --> 00:41:25.671
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.

00:41:25.771 --> 00:41:31.241
4번 보면, 4번 ㉣을 보시면 그
정상이 참혹하더라라고 얘기했죠.

00:41:31.341 --> 00:41:32.637
참혹하더라.

00:41:32.737 --> 00:41:35.099
그러면 참혹하더라라는
말은 뭐냐면 느낌을

00:41:35.199 --> 00:41:37.128
직접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.

00:41:37.228 --> 00:41:40.459
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
느낌, 그 인물이 처해 있는

00:41:40.559 --> 00:41:43.956

그 상황에 대한 느낌을 직접적으로
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

00:41:44.056 --> 00:41:49.964
당연히 참혹하더라라고 얘기하면
그게 바로 서술자의 개입이

00:41:50.064 --> 00:41:51.221
나타났다고 얘기하면 되겠죠.

00:41:51.321 --> 00:41:54.192
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41:54.292 --> 00:41:57.388
여러분, 여기까지 현대 소설하고
고전 소설 하나 살펴봤는데요.

00:41:57.488 --> 00:42:02.204
고전 소설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
고전 소설이 어려운 이유.

00:42:02.304 --> 00:42:04.355
대화 길다, 어떻게 해야 돼?

00:42:04.455 --> 00:42:05.558
요약해라.

00:42:05.658 --> 00:42:07.134
그다음에 어휘 어렵다, 스킵해라.

00:42:07.234 --> 00:42:09.130
이런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죠?

00:42:09.230 --> 00:42:11.834
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
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

00:42:11.934 --> 00:42:14.243
문제 푸는 데 집중해주셨으면
좋겠습니다.

00:42:14.343 --> 00:42:15.544
여러분, 고생하셨고요.

00:42:15.644 --> 00:42:18.280
다음 시간에 대장금이라는
작품 나오네요?

00:42:18.380 --> 00:42:20.587
다음 시간에 또 다른
작품 만나보겠습니다.

00:42:20.687 --> 00:42:22.140
여러분, 수고하셨습니다.